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3

March 2005

| 권두칼럼 | 우리 모두 소임을 다 하자
조 순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경제포커스 |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 산업생태계의 통향과 전망
정 명 순 (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5. 3

차 례

견두칼럼	2	우리 모두 소임을 다 하자 조 순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경제동향	8	요 약
	9	경 기
	15	고 용
	21	금 용
	27	부동산
경제포커스	34	청계천복원 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정 병 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록	67	통계표

우리 모두 소임을 다 하자



조 순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전 서울시장)
chs2821@hanmail.net

나라의 흥망에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경제, 사회, 정치 등의 현황과 앞으로의 진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에게 앞으로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할 경우, 국민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좀 더 분발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금년이 60년, 나라의 나이가 환갑이 됐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나라는 꾸준히 발전했다. 해방 당시의 나라는 국민의 80%가 농민인 가난한 전통 농업국이었다. 그런 나라가 공업화에 성공하여, OECD에 가입한지 해수로 10년이 됐다.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됐고, IT산업에 있어서도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됐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이제 선진국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남들은 이 경이적인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런 밝은 모양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70년대 말부터 생겨난 그림자는 80년대를 통하여 점점 커지면서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연결되었다. 그 그림자는 경제의 몸집이 커지면서 점점 짙어졌다. 계속되는 무리한 투자 확장이 부실을 더욱 조장함으로써,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약화일로에 있었다. 보유 외환이 고갈될 무렵, 1997년 7월, 동남아로부터 외환위기의 바람이 밀어닥쳤다. 외환부족에 견디지 못한 이 나라는 끝내 IMF의 구제차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위기로 돌변했다.

IMF를 맞은 정부는 자의반 타의반(自意半 他意半)으로 지금까지와는 180도로 다른 개혁 개방을 단행했다. 그 것은 우리 경제의 역사상 처음 보는 대수술이었다. 대수술 이후, 경제는 전에 비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못해진 것이 많다. 원래 타의에 의한 개혁은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점, IMF개혁은 1894년 일본의 사주(使族)에 의해 추진된 갑오경장(甲午更張)과 비슷한 면이 있다. 갑오개혁은 많은 후유를 남기고 끝내는 망국으로 이어졌다.

IMF 개혁은 한국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였다. IMF가 몰고 온 금융기관 자기자본비율 8%, 기업 부채비율 200% 등의 생소한 잣대가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용되었다. 새로운 채점방식이 학생을 괴롭히듯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많은 은행과 기업체가 성적미달의 평가를 받아, 강제로 퇴출 합병 매각되었다. 많은 금융기관과 주요기업이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면서, 한국경제 체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저하하는 성장률을 회복하고자 정부는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을 채택하여 성장률을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리수였다. 그 것 때문에 성장동력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은 나타내면서,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작금에 와서 소비심리가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사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저성장의 추세를 고성장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나라전반에 걸쳐, 인적(人的), 제도적(制度的) 인프라가 정비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가 잘 되고 안되고는 첫째, 사람, 둘째, 제도에 달려 있다.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그리고 사회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제도 속에서 움직인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가 잘되자면 사람을 잘 길러야 하고 길러진 사람을 잘 써야 한다. 중국이나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들의 면적이 넓고 자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자원이 많아도 사람들이 시원치 않은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반면, 아주 작은 나라라도 사람들이 일만 잘하면, 세계 일류국이 될 수 있다. 아시아의 싱가포르, 유럽의 몇 개 작은 나라가 좋은 본보기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방면에 걸쳐, 많은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발전의 내용이 부실한 점이 많다. 정치는 경제보다도 더 부실하고, 사회, 교육, 문화 역시 그렇다.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길러져있지 않거나, 길러진 사람마저 잘 쓰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인구비례로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극심한 인재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지성인도 부족하다. 흔히 이공계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공계는 물론 살려야 하지만, 나는 인문사회계는 이공

계보다 더 문제라고 본다. 이공계는 몇몇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수준에 바탕을 둔 회사를 만들어냈다. 이에 비해 정치, 사회, 행정, 문화 등 인문분야에서는 이에 비견할 만한 업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적(人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더 잘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개발연대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경제건설에 바빠서 교육은 뒷전에 밀려, 나라의 기본 인프라인 인재양성에는 소홀했다. 우선 교육투자가 부족했다. 지금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개발연대 당시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였고, 그 고등학교의 기성회회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중고등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 당시 평준화, 한글전용 등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화려한 도로변에서 한 발작 골목길을 따라 학교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슬럼과 같은 교실에서 좁은 책걸상에 무거운 등치를 얹어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투자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점으로는 평준화와 한글전용을 들 수 있다. 나는 “기여입학제”에는 반대하지만, 모든 학교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의미의 평준화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평준화를 고집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길러질 방법은 없다. 모든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글전용은 잘못된 정책이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나는 본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들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동

북아시아의 한 복판에 있는 나라가 한자문맹을 만드는 교육을 하면서, 그 중심 국가가 된다고 하니, 잠꼬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나라 말의 70 - 80%가 한자어인데도, 한자 문맹을 만들면서 문화를 창달한다니 이것 역시 환상에 불과하다.

제도적인 인프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것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다.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Reinvention of Government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정부는 개발시대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개발연대 때에는 정부가 모든 것에 간여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줄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 당시 없었던 역할, 즉, 시민사회시대의 법규를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노조활동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경제는 훨씬 더 좋아지리라 믿는다.

지금 이 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온 나라는 독도문제로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다. 신속하고 단호한 태도 표명은 잘 됐다 본다. 나는 평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분한 것은 일본에게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일본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속 당하면서도 아직도 상대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한 것이다. 이번 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일은 일본이 근시안적이고 속 좁은 나라인가를 보여주었다. 전술적으로도 일본은 분명히 자충수를 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일본을 좀 더

• 우리 모두 소임을 다 하자

알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도 흥분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제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

나라의 흥망에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상황을 만드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다. 정치하는 사람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책임이 있다.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경제, 사회, 정치 등의 현황과 앞으로의 진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에게 앞으로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다.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도 좋다. 이제는 인터넷의 시대이다. 구호에 감동할 사람은 없다. 진실과 성의가 있으면 된다. 국민 에너지의 집중을 유도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할 경우, 국민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좀더 분발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SDI**